

# 강기정 “펀드 종잣돈 3조 조성… 행정 중심은 광주”

사상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뽑는 6·3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부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에 대해 “3조원은 따로 빼 ‘시드머니’로 더 크게 불리겠다”고 말했다.

주청사 논쟁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다”면서도 “행정 중심은 광주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강 시장은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지원 20조 중 3조는 ‘화수분’ 펀드 조성”

강 시장은 “정부가 통합으로 4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0조원 중 대략 3조원은 따로 투자금으로 두겠다. 3조 ‘시드머니’를 통해 20조로, 100조로 키우는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특별시 차원에서 써야 할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일부는 종잣돈으로서 더 크게 불리는 ‘화수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이어 “투자할 때에는 국민연금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기구를 뒀어 한다”며 “펀딩을 어떤 형태로 디자인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 시드머니가 3조면 10배로 늘리거나 확 키울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어 설계하기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펀드의 구체적 방안은 후보 자격으로서 직접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원으로 생기는 재원 20조원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강 시장은 “먼저 위기 산업에 투자해 일

“인센티브 20조 중 3조는 ‘화수분’ 펀드로 불린다”

“주청사 실익 없어… ‘행정 중심’ 광주여야 시너지”

“통합 국면 감안, 숙의형 배심원제 경선 물 적함”

자리를 지키겠다. 새로운 산업·인재 양성에 재원을 투입,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했다. 또 “재원을 농·수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어려운 곳을 어루만지는 데 써야 한다. 끝으로 교통이 연결돼야 통합이 완수된다. 교통과 복지·의료 분야에 쓰는 쪽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 중심은 광주… 주청사 논쟁 그만”

“뜨거운 감자”인 주청사 논쟁에 대해서는 “주청사 개념이 아닌 행정의 중심은 있어야 한다. 광주가 행정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주청사 논쟁은 아무런 결론도, 실익도 없다. 특별법에도 광주·무안·동부청사 3개 청사로 명기돼 있고 시장은 요일 별로 3개 청사를 두루 가서 민심도, 행정도, 정치도 챙겨야 한다”면서도 “행정의 중심은 광주”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5·3특 특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 중심-거점 개념을 분명해야 한다. 중심과 거점을 섞지 말자. 통합의 이유는 수도권과 경쟁할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인데 중심이 존재해야 한다. 행정의 중심이 광주가 아닌 순간, 통합의 시너지는 없다. 중심 없이 흐트러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시 내에서도 목표권과 순천권을 각기 100만 도시로 키워 중심-거점을 모두 살리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지방시대위원회 전략이다”며 “광주는 행정 배후 지원·인공지능(AI), 문화 산업과 민주·평화의 상징으로, 무안은 에너지와 관광 중심 행정 기능을, 동부는 항만·제조업 등 경제 중심이 되면 된다”고 역설했다.

◆“통합 국면에는 숙의형 경선”… 경선 물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방식(물)으로 정한 ‘배심원제·순회 경선’에 대해서 수용했다.

강 시장은 “모든 후보에게 유불리가 작동하고 장단점이 있어 물을 평론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기에 어떤 물이어야 하는지 가치적 문제로 본다면 ‘숙의형’이다”며 현행 경선 물을 대체로 긍정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이 각기 서로 잘 모른다. 지금과 같은 통합 국면에 맞는 ‘숙의형 리더십’이 창출돼야 한다. 때문에 ‘묻지마 투표’ 방식보다는 숙의형 투표를 맞다. 그런 점에서는 숙의형 배심원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다른 후보와의 연대 의사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통합을 함께 시작했던 김



사상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뽑는 6·3지방선거에 출마표를 낸 강기정 광주시장(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영록 전남지사의 손을 잡아야 한다. 신정훈 의원도 대학 시절부터 생각과 모든 것이 똑같은 짝꿍이어서 두 사람 모두 손을 잡고 싶다.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고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1조 지원 약속 지키다”

교통 최대 현안인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주기로 한 인센티브 1조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며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전제로 답변했다.

강 시장은 “강 시장은 이미 (무안공항) KTX 2단계 연결 시점에 민간공항까지 가겠다고 다 약속했다. 국방부도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전에는 기관 간 거래였다면, 이제는 통합특별시 내부 방침 결재로 되는 거니 훨씬 쉽다”고 발언했다.

여객기 참사로 문을 닫은 무안공항 국제선에 대해서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중요하다”면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필요성을 또 한 번 언급했다.

강 시장은 “관광업 등을 고려하면 겨울철이 중요하다. 올해 연말에는 무안공항 문을 열어야 하고 상품은 6월부터 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뒤틀림과 진상 규명 등 여러 사정으로 못한다면 다 준비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로 열자는 것이다. 국토부가 빨리 선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1

## 배심원제 전격 도입…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경선 ‘요동’

민주당 공관위, 배심원제·권역별 순회경선 카드 확정

안방 효과 차단 vs 조직동원 우려… 유·불리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공천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장 공천물로 예비경선 후 5인 본경선, 권역별 순회경선과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1차 경선에서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별로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를 열어 상위 5명으로 압축한 뒤 5인 본경선에선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와 순회투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민주

당 광주시장 경선과 광주 남구청장 경선, 2016년 국민의당 광주 총선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5개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현장·전문심사단(40%), 권리당원 ARS(자동응답) 투표(30%), 국민심사단 ARS 투표(30%)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적용 사례와 첫 통합단체장 선거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본경선을 ▲배심원 100% 완전배심원제 ▲배심원 50%·권리당원 50% ▲배심원 40%·권리당원 30%·여론 30% ▲당원 50%·배심원 25%·여론 25% 등 크게 3~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심장부라는 상징성과 민주당 후보 당선가능성이 높은 점, 후보 간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시민) 배심원제가 기존 표준방식인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의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돼 왔다.

광주 유권자는 전남 정치인들, 전남 유권자는 광주 정치인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하고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숙적 격차도 큰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지역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심원제를 택한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권역별 후보지지율 격차가 큰 이른바 ‘안방효과’도 넉넉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역별 순회경선이 더해질 경우 정견 발표, 토론회, 배심원 투표를 통해 배심원제를 통한 ‘꼼꼼한 심사’와 ‘컨벤션 효

과로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호도 투표, 즉 호선 방식이 거론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배심원제를 두고는 ‘보이지 않는 손’을, 권역별 순회경선을 두고는 고비용·저효율과 조직동원을, 선호투표제를 두고는 고령층의 주권행사에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경선에서 아예 유권자 대상 국민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있다. 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갈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해온 민형배 의원은 “예비경선은 광주, 전남 권리당원 1대1(50대 50) 투표 반영 비율 보정(가중치 적용)을, 본경선은 민심 100%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양강의 또 다른 축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리당원 50%·여론 50%인 표준방식에 1대1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가중치인 부정적 견해다.

두 후보 모두 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경선(일명 체육관 경선), 선호도 투표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왼쪽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전략추진본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뉴스1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 등 나머지 후보들은 공관위 방침에 동의하거나 일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역별 순회 연설회와 토론회는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이 비교·판단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심이 너무 적게 반영될 경우 당원중심주의에 배치될 수 있고 결선투표가 없으면 대표성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최고위에서 어떤 최종안이 나올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 27회 — 구례에 피어하는 노란 설렘

# 구례산수유꽃축제

초대장  
구례 산수유꽃 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작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관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Gurye Sansuyu Flower Festival Propulsion Committee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군 GURYE County